

치우치지 않은 지극한 균형, 역사의 고비마다 길 제시하다

“항상 중용의 길에 나아가 인생을 값지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마음도 정성스럽고(誠), 그 행동도 항상 정성스러워야 할 것이다. 누가 모든 안 보든, 언제 어디서나 오직 정성으로 가득할 때 ‘중용’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옛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즉 홀로 있을 때조차 삼가는 태도(眞謹)을 강조한 배경이다.”(본문 중에서)



중용, 조선을 비꾼 한권의 책

백승중 지음

조선의 왕과 선비들이 가장 사랑한 책은 어떤 책일까? 바로 ‘중용’(中庸)이다. “최고의 수양 서적”인 ‘중용’은 더러 조선의 역사를 바꾸기도 했다. 불과 3500여 자에 불과한 책이 시대를 초월해 많은 이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중용’을 키워드로 조선의 역사를 읽는 책이 발간됐다. 역사가이자 칼럼니스트인 백승중 박사가 펴낸 ‘중용, 조선을 비꾼 한 권의 책’은 한마디로 ‘중용’을 들고 떠나는 문화사 산책이다. 백 작가는 지금까지 ‘조선의 아버지들’, ‘금서, 시대를 읽다’ 등 모두 20여 권에 달하는 역사 관련 서적을 펴낸 역사전문가다.

원텍스트인 ‘중용’의 저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다. 그는 맹자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인물인 사실을 감안하면, 책은 최소한 2400년 전에 출현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일반적으로 중용이란 “사물의 본질에 닿아 있으면서도 가장 적절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고와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중용을 지키며 사는 일이다. 저자인 백 박사는 중용 가운데 ‘사변통행’(思辨通行)이라는 짧은 구절을 마음 다스릴 때 떠올린다. 무슨 일을 하든지 깊이 사유하고

바른 판단을 한 뒤 성실하게 행하라는 뜻이다. 비단 저자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되새겨 봄직하다.

책에 따르면 15세기 후반은 유교 경전을 기준으로 매사가 결정됐다. 성종은 기득권층인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신진사대부를 후원했는데, 특히 신하들이 토론하는 것을 경청했다. 중용이 제시하는 인격 수양의 길을 토론했거나 책에 언급된 이기(理氣)의 선후문제 등도 다뤘다.

연산군은 공부에 취미가 없었다. 신진사대부들은 경연에 나아가 중용과 대학을 공부하라고 당부하거나 채근했다. 조광조는 중종을 ‘군사’(君師)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중종은 조광조의 정치문화적 이상에 공감하지 않았고 기득권층과 적당히 타협했다.

백 박사는 16세기 후반 선비들은 중용을 통해 큰 힘을 얻었다고 본다. 조광조 일파의 실패로 어두운



불과 3500여 글자에 불과한 ‘중용’은 성리학적 이념의 조선사회를 지탱한 ‘최고의 수양 서적’이었다. 사진은 광주 광산구에 소재하는 월봉서원. <광주일보 자료>

상황이었지만 중용의 메시지 ‘나 한사람의 도덕성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희망의 불씨가 됐다.

17세기 조선 사회는 새로운 희망을 예학에서 찾고자 했다. 그러나 윤휴의 ‘중용설’은 주희의 ‘중용장구집주’를 자신의 견해에 따라 바꾸면서 송시열과 적이진다. 결국 두 사람의 불화는 상대의 목숨을 빼앗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18세기 진보적 지식인들은 형이상학적 경전 해석과 거리를 뒀다. 정약용, 이덕무, 홍대용, 김정희 등

은 실지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실사구시를 견지했다. ‘중용’을 일상에 가깝게 접목했다는 점에서, 저자는 윤휴를 높이 평가한다.

또한 백 박사는 조선의 왕과 선비들은 중용의 우주관 또는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봤다고 부연한다. 당면한 현안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답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중용이 현실에 어울리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방증이다.

“지난 2천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다가온다. ‘중용’은 위기의 시대마다 늘 새롭게 해석되었다는 점이다. 21세기라고 무엇이 크게 다를까. 새 시대의 ‘중용’ 해석은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이의 평화를 위한 헌장을 되새기는 작업이기를 바란다.”

<사우·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단순한 진심

조해진 지음

신동엽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수상 작가 조해진의 장편 ‘단순한 진심’이 출간됐다.

소설은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계 극작가 ‘나나’가 뜻밖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행을 한다는 이야기다. 그의 결정을 건드린 건 한국의 대학생 ‘서영’의 메일이었다. 서영은 나나의 입양 전 이름인 ‘문주’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밝힌다.

한국에 온 나나는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난 타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에도 몰두한다. 만나는 이들의 이름을 몰으며, 거쳐 간 서울 곳곳의 지명도 몰으며 그 의미를 묻는다. 먼 시간간격을 지나 우연히 마주친 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기 위해 애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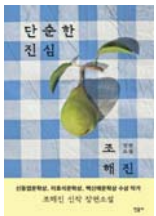
특히 나나는 자신이 머물게 된 1층의 ‘복희 식당’ 주인 할머니로부터 ‘아기 가졌을 땐 무거운 거 드는 거 아니야’라는 환대와 보호의 말을 듣고 생면부지였던 노인의 삶을 생각한다. 타인이 일러준 말 한마디에 자신이 지니고 있던 뿌리 깊은 오해와 증오를 차츰 해소하기도 한다.

타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든다. 지금까지 조해진 작가의 소설에는 졸곧 자신을 향한 탐색과 타자를 향한 응시의 시선이 공존해왔다. 혼자만의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타인의 삶 쪽으로 손을 뻗는 마음은 그의 소설의 힘이자, 그가 믿는 인간성일 것이다.

김현 시인은 추천의 말에서 “진심이라는 말처럼 매우 흔하나 그 실체를 알 리 없는 말도 없다. 조해진은 진심이라는 관념의 공간을 느끼게 거닐면서 그 지명에 담긴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평한다.

<민음사·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식물학자의 식탁

스친 지음, 박소정 옮김

범박하게 말하면 인류 발전의 역사는 곧 먹는 역사다. 배고픔을 면하게 된 지금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다. 맛있게 먹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무엇보다 뭘 먹는지 알고 먹는 게 중요해졌다.

글로벌 시대 맞춰 우리의 식탁 또한 변화하고 있다. 점차 신기하고 낯선 식물들이 식탁 위로 올라온다. 중국의 식물학 박사이자 인기 있는 식물학자인 스친이 펴낸 ‘식물학자의 식탁’은 식물을 매개로 한 역사와 과학, 요리에 관한 책이다.

식물학은 식물의 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물학의 한 분과다. 저자는 식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은 물론 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다채롭게 펼쳐낸다. 책에는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있는 상고 시대 간식 ‘은행’, 위험한 ‘대형 고구마’인 ‘카사바’, 독이 있는 콩 ‘연리초’, 창자와 뇌를 어지럽히는 대형 버섯 ‘그물버섯’ 등 다양한 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요컨대 핵두(호두)에는 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지만, 이 영양소는 핵두뿐이 아닌 다른 음식에도 있다. 무엇보다 이 성분들이 흥분제처럼 짧은 시간 안에 뇌의 활동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핵두가 머리를 좋게 만들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본인의 뇌를 더 발달시키고 싶다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두뇌사고훈련을 강화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이처럼 책에는 식탁을 좌우할 유익한 지식은 물론 식물들의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다. 저자는 식물의 특징과 독성, 식용 방식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식탁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유용한 정보도 제공한다.

<현대지성·1만7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클래식 아는 척하기

라이언 앤드리스 지음, 크리스 옮김

예술과 대중문화를 넘어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스며든 클래식 음악. 하지만 아직도 클래식은 낯설고 어려우며, 난해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클래식을 접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복잡한 용어, 낯선 작곡가뿐 아니라 대중음악과 달리 쉽게 다가오지 않는 감성 등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콜게이트대학 음악학과 조교수 라이언 앤드리스가 클래식 입문자를 위한 기초 지식을 한 데 모은 책 ‘클래식 아는 척하기’를 출간했다.

책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 ‘음악의 기원’부터 현대 ‘전위 음악’까지 1500년이 넘는 시간 속 작곡가·음악사를 짚으며 음악이 걸어온 길을 간추려 담았으며, ‘아는 척’하기 좋은 다양한 클래식 용어들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실었다.

책은 총 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 고대·중세 시대 음악이 예술이 아닌 과학의 일부로 여겨지던 시절부터 시작해 교회 음악이 발달한 중세 음악 등의 이야기를 다룬다.

2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은 예술가들 덕에 음악의 구조적 변화가 두드러진 르네상스 음악을 설명하고, 3장에서 바흐·비발디로 대표되는 바로크 음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4장은 모차르트·베토벤 등을 위시한 고전 음악의 부분으로 채웠고, 5장은 멜로디, 개성, 참신함 및 감정에 대한 강조 등이 두드러지며 오케스트라 음악이 크게 발전한 낭만주의 음악을 짚는다. 마지막 6장은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등의 혁신적인 음악적 시도로 태어난 전위 음악의 기록을 둘러본다.

<팬덤북스·1만4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